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연구

A Study of Art Museums Convergence Education Model for
the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주 저 자 : 양연경 (Yang, Yeon Kyoung)

한성대학교 아트앤디자인커뮤니케이션연구소
NRF 학술연구교수(학술연구원)

ykyang@hansung.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1.1.50>

접수일자 2021. 02. 25. / 심사완료일자 2021. 03. 16. / 게재확정일자 2021. 03. 25.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75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B5A16082754)

Abstract

This work presents the following objec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rt gallery convergence education model that promotes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First, expanding the Barrier Free Museum education program and spreading community awareness, Second,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experts and improving the service of disabled visitors, Third,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and the analysis of 'Rapport building', and Fourth, establishment of basic model of convergence service design guidelines.

This study conducted FGI for 12 people, including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eacher for the disabled, curators, medical specialist, and university professors. As a result, the art museum convergence education model for people with mild disabilities was able to derive cycles Exploring accessibility-Expanding participation and providing opportunities-Inducing interest and social studies-Comprehensive verification-Integration and satisfaction experience-Evaluating educational effectiveness-Feedback and re-application, etc. This study summarizes the effective museum training supervision and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we can expect to improve social skills through art museum convergence education, Second, strengthening art museum workers' expertise in education for disabilities, Third, implementing OBL methods and action-learning art museum education edutainment, and Fourth, establishing inclusive guidelines for educational contents.

Keyword

Art Museums Convergence Education, Museum Guidelines, Mild Disabilities, Barrier Free

요약

본 연구는 경증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공동체 의식 확산, 둘째, 교육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및 장애인 관람객 서비스 제고, 셋째, 미술관 담당자를 위한 장애인의 객관적 이해 및 라포 형성 분석, 넷째, 미술관 교육의 융합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초 모델 수립 등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자녀 학부모, 특수교사, 큐레이터, 의료인, 대학교수 등, 12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증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은 접근성 탐색-참여 확대 및 기회 제공-흥미 유발과 사회성 연구-종합 검증-몰입과 만족감 경험-교육 효과성 평가-환류 및 재적용 등의 순환적 사이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뮤지엄 교육 슈퍼비전과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미술관 융합 교육을 통한 사회성 향상, 둘째, 미술관 전문가의 장애인 교육 전문성 강화 및 미술관 업무 고도화, 셋째, OBL 방식과 액션 러닝을 겸한 미술관 교육 에듀테인먼트 구현, 넷째, 교육 콘텐츠 구현의 포용적 가이드라인 구축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장애인의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

- 2-1. 국내 장애인의 문화향유 및 인식 고찰
- 2-2. 미술관 문화향유 예술체험 필요성 고찰

3. 미술관 교육 중점 학예 업무 유형 분석

- 3-1.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분석
- 3-2. 에듀케이터 학예 업무의 가이드라인 수립

4. 미술관 경증 장애인 융합교육 모델 구축

- 4-1. 미술관 융합교육 기초 모델 FGI 분석
- 4-2. 경증 장애인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제안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이 장르 중심 예술 기법을 교육하는 상호작용 체계로 이루어져 왔다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연구개발, 자원 관리, 학습자 관리, 교육 방법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직 및 인력들의 협력이 필요하다.¹⁾ 특히 박물관, 미술관 중심의 국내 뮤지엄 문화예술교육은 대중성과 전문성으로 이분화되어 전시 연계 주요 행사의 역할로 머물던 범주를 벗어나 폭넓은 관람객 대상들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요소들이 확장되고 있다. 뮤지엄의 방문 대상자들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하며, 이들이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관람 및 감상과 교육 활동을 향유하는 원활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참여 활동의 접근성이 부족한 장애인들은 외부 환경으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전시장의 소장품이나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전시회 자체에서 파생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및 체험 중심 연계 활동들이 유연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편이다.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노년층, 중증장애인 등은 그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돌봄을 지원해도 외부 활동이 어렵고 문화예술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가까운 거리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증 발달장애인, 경계선 지능 학습장애인, 경증 인지장애 노년층 등은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의 제약이 적은 편이므로, 본인이 직접 미술관(또는 박물관)에 방문하여 자원봉사요원이나 전문 도슨트, 에듀케이터의 현장 안내와 도움 요청에 따라 원활한 전시 관람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 임학순, 사회혁신을 실천하다:미술교육과 파트너십, 2020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결과보고서-한국조형교육학회, 2020, p.11. 부분 요약.

5. 결론

참고문헌

‘코로나 팬데믹(Corona Pandemic)’ 현상으로 인해 교육환경 접근성과 학습권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 따른 비대면 활동 전환 등으로 인해 문화 접근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생활의 활력은 매우 감소된 상태이다. 감염성 질병의 위험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과 비대면 활동의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소통과 마음치유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감상 향유의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 대상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유연하게 통합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술관 전시 감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구축될 수 있는 포용적 인식의 제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프를 넓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²⁾의 당위성을 제안한다.

둘째,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활동 참여에 있어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세분화된 예술교육 마이크로 티칭(micro teaching)의 전문성 역량을 높이고,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와 학예 업무 소양을 갖추고자 함이다.

셋째,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자 및 파트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장애인의 객관적 이해와 그들의 활동 멘토링에 대한 오픈 마인드, 긍정적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³⁾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을 분석한다.

넷째, 미술관의 경증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뮤지엄 교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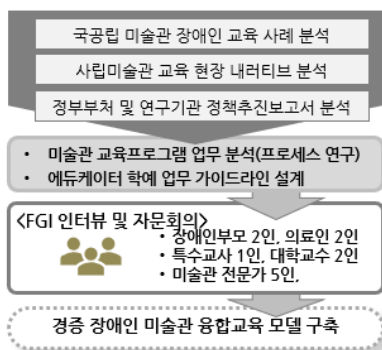
- 2) 고령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 접근성 취약계층들도 물리적, 제도적 제약 없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개념.
- 3) 상담과 교육을 전제로 하는 의사소통에 있어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 관계를 의미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담심리학, 특수교육학 공통.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7363&cid=62841&categoryId=62841>)

개선 사항들과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 서비스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초 모델을 수립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미술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공립 미술관 및 등록사립미술관 내에서 진행되었던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현황, 예술 체험과 전시해설이 동반되는 전시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현황, 장애인 대상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각 상황별로 사례 유형을 1차 조사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넓은 범주로 살펴보기 위해 2003년에 개관한 서울 소재의 등록사립미술관의 2006년~2020년 미술관 교육 현황의 장기적 내러티브를 연구함으로써 기본적인 미술관 교육과 장애인 대상 또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교육 등의 현장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특히 미술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2020년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아우르는 미술관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미술관 융합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요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교육 담당 큐레이터 및 교육 파트장으로서의 에듀케이터의 주요 역할에 대한 학예업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미술관 융합교육 준거 기준을 마련하였다. 배리어프리 개념을 도입한 장애인 통합 미술관 교육을 위하여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소규모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문화예술교육사 등의 미술관 교육 전문가들도 교육현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그림 1]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연구의 범위 설정과 주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예술성 함양, 융합교육의 고도화, 장애인 교육과 돌봄의 특수성, 감수성과 치유의 포용 등을 함께 연구하고 현존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FGI를 통해 경증 장애인의 효과적인 미술관 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통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향후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FGI는 발달장애인 부모 2인, 구립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 및 작업치료사 1인, 특수학교 초·중·고학년 담당 특수교사 1인, 미술관 학예사 3인, 에듀케이터 2인, 대학교수 2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를 위해 경증 장애인이 자발적 능력과 의지를 통해 미술관 융합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취합하였다.

2. 장애인의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

2-1. 국내 장애인의 문화향유 인식 고찰

시대적 변화 및 사회복지의 발전과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장애의 개념은 '신체기능과 활동 참여에 대한 장애' 및 '환경 조건과 개별 조건 기반의 상황적 요인들' 2개 영역의 조건으로 장애의 객관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이 제시되는 긍정적 용어의 사용으로 점차 순화되고 있다.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의 향유와 배움 등을 통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는 일체의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창의력, 통합교육, 자아 정체성 확립, 다문화 이해, 삶의 질 향상, 예술치료와 치유 등에 접근하면서 장기적, 연속적,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들은 창의적인 생각, 이해 중심 사고력, 감성적 성장, 자아의식 개발, 함께하는 삶의 동반 등을 배우는 요소가 된다.⁵⁾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운용 수익금 65%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2005, pp.6-7. 요약 재구성.

5) Ibid., p.22. p.57. 요약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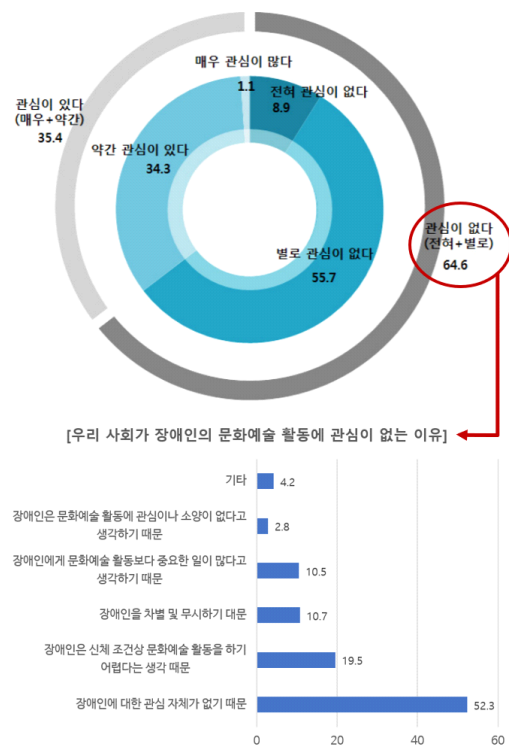
하고 있다.⁶⁾ 복권기금 문화예술 사업에서 (사)한국박물관협회는 2012년부터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100개 내외의 기관들을 선정하여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한 전시회 관람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다.⁷⁾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⁸⁾은 군부대, 치료감호소, 소년원학교,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상이군경,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문화접근성 취약 대상자들의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 및 교육 운영의 특징은 전시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참여 활동과 현장 관람과 병행되는 해설 감상 등이 대표적이다. 예술 작품들을 토대로 구축되는 미술관의 특별기획 전시회는 심미적 창작 활동과 창의력 증진에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 전시 연계 교육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함에 따라 워크숍, 세미나, 창작 활동, 예술 아카데미, 진로 탐색 등의 형태로 파생되는 문화예술 활동에 새로운 확산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2]와 같이 20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집계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1,000명의 설문 대상자 중, 646명이 ‘별로 관심이 없다(557명)’ 및 ‘전혀 관심이 없다(89명)’ 이라는 항목에 많은 응답을 보였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3명(52.3%)를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들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그 외에도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사회 전반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행위들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을 어

렵게 하는 요인들로 2,3번째 순위를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하단의 집계 결과 내용은 앞서 제시되었던 국고지원 예산 내에서 문화 소외계층 및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다수 기금들이 지원되어 감상, 체험, 학교 연계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의 편견과 좁은 시선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장애·비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자체에 대해 폭넓고 섬세한 관심과 사회적 의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음으로써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새로운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다.



[그림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심과 차별 정도¹⁰⁾

2-2. 미술관 문화향유 예술체험 필요성 고찰

미술관의 기본 역할은 전시, 교육, 출판, 연구,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가, 기획자, 관람객이 예술로 소통하는 ‘모두에게 열린 장(場)’으로서의 의미로 통용된다.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6)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기금집행 현황 결과(2021년 2월 공개자료 기준).

http://www.bokgwon.go.kr/fund/03_01.jsp

7) (사)한국박물관협회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지 사례. (2021.02.17.:계시물은 2013년 3월 26일 업로드됨)
https://www.museum.or.kr/museum_bd4/bbs/board.php?bo_table=news&wr_id=160&page=113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https://www.art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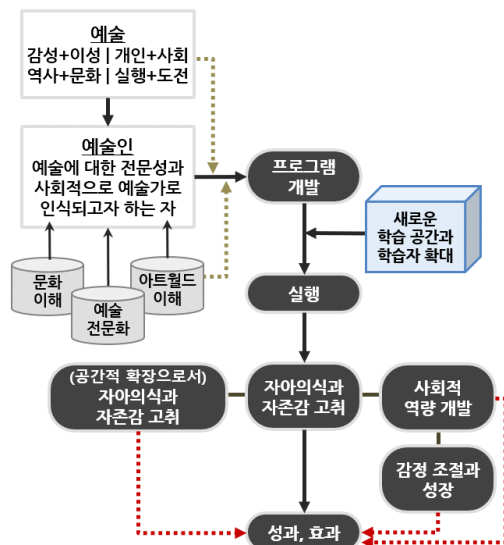
9) 조현성,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2020, 2020-07호, pp.25-26.

10) Ibid., pp.25-26.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전시 위주의 업무에 집중하던 큐레이터들은 교육 기획·개발·운영 등을 총괄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추세이다.

주 5일 근무제도가 시행 이후부터 근로자들은 노동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기성찰, 창조성, 개인의 행복 등에 집중하게 되었다. 예술기관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예술의 의미, 예술 세계, 기술적 트렌드에 따른 미디어 활용 등의 새로운 재정립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이다.¹¹⁾ 예술은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석’과 ‘적응’에 도움을 준다. 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이며, 즐거움, 휴식의 원천이 되면서 일상적 압박과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별함이 있다.¹²⁾

미술관 교육은 문화의 긍정적 촉매가 되어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역할을 한다. 또한 감상교육을 통해 ‘미술 소비자 교육’과 미적 안목을 육성하는 교육, 감상과 비평능력 함양, 시각문화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동반한다.¹³⁾



[그림 3] 사회적·교육적 수용 중심 예술교육 과정 구조도¹⁴⁾

11) 정연희, 삶의 균형을 위한 예술교육, 미술과교육, 2019, vol.20, no.4, pp.42~43. 요약 재구성.

12) Ibid., pp.45~46. 요약 재구성.

13) 심효진, 정옥희, 국내 미술관 교육 연구 현황 및 동향 탐색, 조형교육, 2014, 52호, pp.208~209. 요약 재구성.

[그림 3]은 예술의 보편적 접근성을 통해 새로운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포용적 합의 기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과정 구조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 인권운동에서 촉발되어 장애인에 대해 ‘개인의 역량과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도 ‘재구성력’ 기반의 창의력, 통합교육, 자아정체 확립, 다문화적 이해, 예술치료와 치유 등이 통용됨으로써 개인적 성취감과 사회문화적 새로운 이해로 확장되고 있다.¹⁵⁾

미술관 교육의 필요성과 문화향유의 당위성을 논함에 있어 미술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과 막연한 거리감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융화되어 문화예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동등한 시야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통합에서 기인하는 융합성, 더불어 누리는 품위 있는 삶의 질 향상 등을 넓은 의미의 맥락에서 포용해야 하는 영역이 미술관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안목이 길러지고, 감상·교육·체험·휴식 등의 복합적 요소들을 통해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활동 경험들이 융합사회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3. 미술관 교육 중점 학예 업무 유형 분석

3-1.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분석

국내의 국공립미술관들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장애인, 초고령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엄 서비스의 세분화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대다수 사립미술관은 물리적인 접근성과 미술관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서비스 세분화의 만족도가 각 기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사립미술관은 장애인 전용 시설 확충의 문제, 발달장애인과 경증 인지장애 초고령 노년층 관람객을 수용하는 전문적인 뮤지엄 서비스의 문제를 다년간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과 객관적 준거의 틀을 갖출 수 있는 노하우를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국내 사립미술관들도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예

14) 백령, 민정아,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장애예술대상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구도, 문화예술복합학 2019 공동학술대회, 2019, p.42

15) Ibid., p.37 부분 요약.

듀케이터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후원 및 공모 선발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미술관들을 중심으로 교육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에듀케이터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¹⁶⁾ 에듀케이터는 교육 전문 큐레이터를 지칭하며, 'Education Curator'의 의미를 포괄하는 교육 전담 미술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미술관 큐레이터의 역할은 다양한 창의성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발휘하는 업무 역량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전시회 기획 및 운영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업무에서 교육 파트의 사회적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문 역할로서 교육 전문 에듀케이터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다수의 사립미술관들은 매년 마다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를 중심으로 '큐레이터 전문인력 지원사업', '에듀케이터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예인력들을 지원받아 미술관 분야에서 사전 검증된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선발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는 미술관 운영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시·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축한다.

[표 1]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유형

프로그램 유형	교육 목적	운영 시기
체험형 교육 활동	체험 및 간단한 작품 제작 노하우를 배우는 실습 기반 예술 교육.	전시회 오픈 이전 및 전시 개최기간
전시해설 감상교육	전문 도슨트와 큐레이터(또는 에듀케이터)의 전시해설을 통해 전시회 주요 취지와 작품 감상의 이해 및 안목을 높이는 관람해설 중심의 교육.	전시 개최기간
자원봉사 및 도슨트 전문교육	전시 관람 및 교육 참여자들의 안내와 미술관 주요 서비스를 돕기 위한 사전 교육, 도슨트 전문교육은 작품 해설 중심의 관람객 서비스를 중점으로 작가 연구와 말하기 연습 등을 병행하여 진행함.	전시회 오픈 이전 및 전시 개최기간
강연 및 세미나	전시 주제와 관련된 전문 분야의 예술강사 및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심화 교육, 세미나, 워크숍, 분기별 아카데미 등의 형식으로 운영됨.	전시 개최기간 (분기별 중심 아카데미는 장기간 진행)
큐레이토리얼 & 예술가 워크숍	전시기획팀과 참여 작가들의 전시 기획 의도 및 작품 제작의 이해를 상호간에 협력하고 돕기 위한 전문교육.	전시회 기획 및 준비 단계

16) 2006년에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8개의 국내 등록사립 미술관들이 회원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http://www.artmuseums.or.kr/community/notice_view.php?db=notice&category=&id=602
 (2006년 2월 4일자에 공지된 에듀케이터 사업 안내)

[표 1]과 같이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재료탐색과 시각적 표현 중심의 체험형 교육활동, 전시장 현장에서 전문가의 작품 해설을 직접 들으며 작품 관람에 참여하는 전시해설 감상교육, 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예술 연구의 학문적 결과들을 공유하는 강연 및 세미나, 관람객의 미술관 활동을 효과적으로 돕는 사전 교육과 리허설로 훈련받는 자원봉사 및 도슨트 전문 교육, 전시기획 주제와 내러티브에 맞게 작품을 연출하고 예술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전시 참여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큐레이토리얼 & 예술가 워크숍 등이 대표적이다. 미술관 교육은 대개 큐레이터에 의해 전시회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연계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예술 전문지식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교육 참여에 중점을 두고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하여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대개 일반적이다.

특히 2020년 이후의 모든 미술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교육 서비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스마트IT 환경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보급 및 확산의 방식으로 미술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겪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한 공감력을 갖춘 미술관 전문가들의 전시 감상 서비스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업무들은 새롭게 체계적인 학예업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의 구축이 꼭 필요하다.

3-2. 에듀케이터 학예 업무의 가이드라인 수립

2020년 12월 까지 집계된 기준에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 등록된 국내 사립미술관들은 상근직 학예인력 5인 내외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관들이 90% 내외를 차지한다. 도슨트, 자원봉사, 실무연수생 등을 단기간 투입하는 조직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미술관 경영의 주축이 되는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책임은 매우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에듀케이터 또한 전시기획에 50% 이상 협력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공공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전시 전문 큐레이터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¹⁷⁾을 필수로 소지해야 하며, 교육 전문 에듀케이터는 학예사

17) 본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는 국가공인 전문가자격증이며, 자격증 발급 및 심사의 행정업무는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curator_certificate_schemes (2021. 02.16)

자격증, 교사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전문가가 고용된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7인과 2017년~2020년 3개년 중심으로 개별 미팅을 통해 파악된 현황의 경우, 미술관 경력 5년차 큐레이터는 사립미술관협회의 지원사업으로 선발되어 20개월 간 에듀케이터로 근무했다가 다른 미술관으로 이직하여 큐레이터로 고용됨을 언급한 바 있다. 10년차 미술관 전문가 ‘ㄱ’ 학예사는 A미술관 큐레이터(2년)-B미술관 에듀케이터(1년)-C미술관 에듀케이터(2년)-D미술관 큐레이터(5년) 등으로 다수 이직하면서 근무한 개인 사례를 제시하였다.¹⁸⁾

상기와 같은 국내 미술관 근무 환경의 현실적인 제약과 연속 근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볼 때, 미술관 전문가들의 근무 여건과 전문성 함양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뮤지엄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중점 업무에 있어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 촉진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세분화된 기준들이 필요하다. UMass Amherst의 M.C.Pachucki 교수(2012)는 뮤지엄 서비스 품질의 기준을 ‘미적 기준(aesthetic criteria)’에만 두면서 전문가 조직의 상호 협의 및 논의가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미술관 전문가 조직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개인주의적 업무 문제를 극복하고 협력과 독립이 적절하게 분배된 미술관 구성원들의 능력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¹⁹⁾

미술관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가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전문성 있고 내실을 갖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참고 지표가 되는 교육 학예 업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 [표 2]²⁰⁾와 같다. 미술관 교육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면 전시팀과 교육팀이 각각 운영하는 국공립미술관은 원활한 업무 협력이 가능하고, 소규모 사립미술관은 1인 큐레이터가 겪는 전시와 교육 업무 동시 수행의 난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업무 갈등의 최소화 및 협동 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직이나 부서별 이동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새로운 업무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18) 서울 종로구 소재의 상원미술관, 삼곡미술관, 자하미술관, 토탈미술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7인과의 개별 대담 결과.

19) Mark C. Pachucki, Classifying quality: Cognition, Interaction, and Status Appraisal of Art Museums, Poetics, 2012, vol.40, no.1, pp.84-85. 요약 재구성.

20) 남현우, 미술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모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2), 2008, pp.158-159. 기획-준비-실행-평가 등의 용어를 부분적 차용함.

[표 2] 에듀케이터 학예 업무 영역별 세부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유형	업무 가이드라인 기준	협력/분배 사항
체험형 교육 활동	• [기획] 전시주제, 주요작가(작품), 상설체험 중, 태크 하여 교안 구성. • [준비] 주제료, 보조도구, 교구 및 장비, 교육활동지 인쇄물 등의 사전 준비 및 상황 체크하기. • [준비] 교육실 현장 환경 점검 및 실습 보조강사 리허설 교육 훈련. • [준비] 교육 예약 참석자 리마인드 컨펌 및 방문 계획 확인 • [실행] 참여자 안전교육 및 실습 도움 서비스 제공, 만족도 의견취합	*에듀케이터 중점 운영 *전시주제 연계 및 작가작품 이미지 활용: 큐레이터 협조 및 컨펌 필요
전시해설 감상교육	• [기획] 큐레이터 전시기획 원고의 사전 파악 및 작가 프로필 큐레이터 • [준비] 아르떼 지원사업 교육 또는 학교연계교육 등에 따른 유형별 감상 교안 준비, 작가 사전 인터뷰 • [실행] 전시 해설 수업, VTS²¹⁾ 참여 수업 등의 관람 현장운영	*업무비중: 큐레이터 70%, 에듀케이터 30%
자원봉사 및 도슨트 전문교육	• [준비] 도슨트 선발 및 전시해설 교육정보 훈련, 현장 스피치 원고작성 컨펌, 사전 리허설 훈련 피드백 • [준비] 봉사요원 선발 및 시설안내, 전시행사 안내, 교육 운영 안내, 고객요구사항 FAQ 대응 연습 • [실행] D-day 리허설 및 현장 스피치 전달력, 관람객 반응 상시점검 • [실행] 현장별 인력 배치 및 공간 운영 상황 체크 및 감독	*에듀케이터 중점 운영 *전시장 환경 관련 교육은 큐레이터와 공동교육 진행함
강연 및 세미나	• [기획] 강의 주제 및 청중 설정, 참고자료 수집 및 분석, 강사 섭외 • [준비] 교안 제작과 인쇄, 기자재 점검, 좌석 배열 및 교육환경 정리 • [실행] 강연자 및 참여자 안내, 자원봉사 인력 현장진행 관리 감독	*에듀케이터 중점 운영 *강연자가 작가일 때 큐레이터 협력 필요
큐레이토리얼 & 예술가 워크숍	• [기획] 전시주제 관련 참고자료 수집, 문서·영상·DB자료 등의 취합, 큐레이터와 교육 협력 전략 수립 • [준비] 전시 큐레이션 자료 중심의 작가 워크숍 교육 자료 준비 • [실행] 전시 운영 계획 전략 공동 컨설팅, 연계 교육업 협력 제안	*업무비중: 큐레이터 70% 에듀케이터 30%
*기타 특수상황 대비	• 국고지원사업 교육 행정에 필요한 증빙작업 관리업무 총괄 • 체험교육 안전사고, 화재 및 지진 대피, 감염예방 위생관리 등에 대한 비상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 장애인 통합교육 및 장애인 대상 특별교육 등에 대한 사전 준비 총괄 • 영유아 미술관 활동 참여에 따른 안전교육, 필요시절 대여 업무 총괄	*전시 특수상황 사전 대비: 큐레이터 *교육 특수상황 사전대비: 에듀케이터

4. 미술관 경증 장애인 융합교육 모델 구축

4-1. 미술관 융합교육 기초 모델 수립 FGI 분석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의 특수한 환경 요인과 장애 특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장애 특성과 환경 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예술교육을 통해 재능 발굴과 자립을 이끌어주는 것이다.²²⁾ 중증 장애인은 활동 보조를 돕는 활동 지원사나 전문 의료인의 도움이 병행되어야 외부 활동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제약점이 있다. 이에 비해서 경증 장애인은 가족의 동반 참여(보호 및 보조자가 아닌 동반 참여자)나 미술관 자원봉사자 및 보조강사들의 간단한 도움이 뒷받침되면 관람, 교육, 체험, 엔터테인먼트 활동 등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위해 2020년 12월~2021년 1월에 진행된 FGI 그룹은 총 12인으로 구성되며,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2인,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1인과 간호사 1인, 서울 소재 발달장애 아동 특수학교 재직 5학년 담임교사 1인, 서울 소재의 미술관 근무 전시큐레이터 3인 및 에듀케이터 2인, 융합교육 전문 대학교수 2인 등을 구성하여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그룹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²³⁾ 및 장애인 동료상담사 자격²⁴⁾을 취득한 전문성을 갖춘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미술관 학예인력 전문가들은 5년 이상 장애인 대상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경험자들을 섭외했으며, 대학교수는 장애인 대상 미술

관 교육 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디자인 융합교육 전공 교수 및 특수교육 내 미술교과 전공 교수를 섭외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이들 FGI 그룹은 2020년 12월, 2021년 1월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되면서 [표 3]에 대한 기초 설문 평가를 근거 내용으로 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뮤지엄 교육 동행 경험, 미술관 연계 교육 계획 수립 시 문제점, 현재 문화공간 서비스의 문제점, 정책적 요청사항 등을 인터뷰 및 자문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논의하였다.

[표 3]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현황에 대한 기초 설문 평가 기준

기준	평가 내역
물리적 접근성	시설 입장 및 관람(교육), 활동보조 등이 용이하였다.
참여의 기회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미술관 활동이 늘어났다.
성취와 만족의 경험	체험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술치료와 치유 효과성	미술관 활동을 통해 예술치료와 심리치유 효과가 증진되었다.
사회성/신뢰성	라포형성으로 상호간 신뢰감이 향상되었다
흥미/관심/몰입	미술관 활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 관심, 몰입의 효과를 제공하였다

[표 3]은 물리적 접근성, 참여 기회, 성취와 만족의 경험, 예술치료와 치유 효과성, 사회성과 신뢰성, 흥미/관심/몰입 등의 영역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기준이며, [그림 4]와 같은 통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평가는 5점 척도법 기준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여 ‘매우 그렇다-10점’, ‘그렇다-8점’, ‘보통-6점’, ‘아니다-4점’, ‘매우 아니다-2점’ 등으로 설문 항목별로 각각 점수를 표기하도록 안내했으며, 12명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1차적 결과로, ‘시설 입장 및 관람(교육), 활동보조 등이 용이하였다.’ 항목의 점수가 FGI 참여자들에게 대체로 4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보였다. 또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미술관 활동이 늘어났다’라는 항목은 평균 6점 내외 범위를 보여주지만, 특수교사는 여전히 참여 기회가 적어서 뮤지엄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받기 힘들다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참여의 기회’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미술관 활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 관심, 몰입의 효과를 제공하였다’ 항목은 FGI 참여자들에게 8점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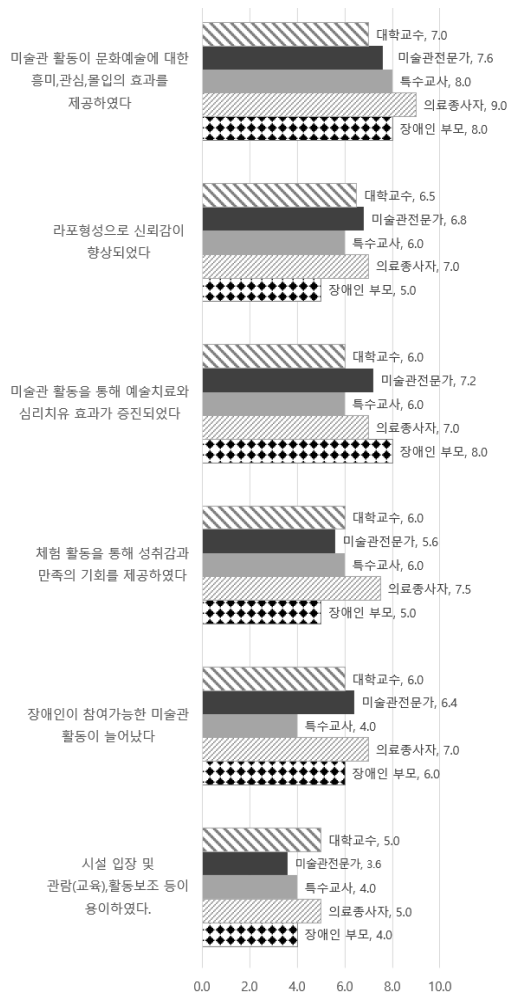
21) ‘시각적 사고 전략(Visual Thinking Strategy)’을 지칭함. 전시 감상 관람객의 사고와 관찰을 유도하는 발문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관람객의 새로운 자극과 상상력을 활용하는 감상교육 전략. 김수진, 구성주의적 감상 교육에서 “주제”의 생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술과교육, 20(2), 2019, p.113. 부분 요약.

22) 전병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5, 2015-08호, p.121. 부분 요약.

23) 장애인의 외부 활동지원과 사회적응 훈련 교육이 가능한 표준과정 이수자 자격 취득 전문가.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2021. 03.14)

24) 장애인 동료상담사 자격증은 1~3급으로 분류되며, 장애인 복지제도와 활동 도움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자격 취득 제도임. 본 연구 FGI 참여자들은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http://www.koil.kr> (2021. 03.14)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미술관 활동을 통해 예술치료와 심리치유의 효과가 증진되었다’ 항목이 6~8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두 번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림 4] 장애인의 미술관 활동 참여에 대한 FGI 결과 분석

이는 미술관 참여 활동을 매개로 하여 예술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관심의 효과를 자극하고 ‘몰입’을 통한 집중과 사고(思考)의 힘을 높여주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예술체험 교육의 섬세하고 독특한 물리적 활동들이 수반됨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 기능 향상과 회복, 심리적인 치유의 간접 효과도 임상 활동과 연계할 수 특장점도 중요한 기회 중의 하나이다. 우선,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미술관에서 돌발 행동을 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시스템의 부족을 언급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서비스

시설 및 대응인력 부족을 덧붙이면서도, 국공립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는 개선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사립미술관의 긍정적인 개선도 기대하였다. 한편, FGI에 참여한 작업치료사와 간호사는 각각 병원 재활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근무인력이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립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 그룹이다. 이들은 예술대학, 예술센터, 미술관 등과 협약을 맺고 임상으로서의 미술치료 활동이 고정 프로그램으로 구축된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특히 아웃리치(Out-reach) 형태의 ‘찾아가는 미술관(미술 감상교육)’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장애인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활력소가 되는 사후 결과들을 현장에서 느껴온 경험의 축적을 제시하였다.

초등 5학년 담임 특수교사 1인은 현재 특수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 업무의 어려움을 제시하며 뮤지엄 프로그램의 외부 참여를 위해 다수의 기관들과 협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거의 무산되는 경험들을 겪어온 사례들에 대해 일부 부정적 경험들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장애아동들을 학급 단위로 인솔해야 하므로 미술관 방문을 위한 외부 활동 안전문제 및 효과적인 견학 활동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문학예인력 및 대학교수들은 미술관 현장 자체평가에 대한 의견들을 주로 제시하였다. 미술관 근무자로서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들은 본인들의 근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장애인 응대 서비스를 위한 공간적 환경 조건, 부대시설, 전용시설 등이 사립미술관에는 매우 열악하고 부족한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딜레마의 상황을 토로하였다. 특히 전문 학예인력들과 도슨트 및 자원봉사자들도 장애인 관람객이 방문하였을 때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안내할 수 있는 에티켓과 돌발상황 대처방안에 대해 전문교육을 꾸준히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미술관 내에서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됨을 여러 사례들로 언급하였다. 대학교수 그룹은 장애인이 참여하는 미술관 교육의 유형에 따라 학습 프로그램들의 유형을 세분화·차별화·개인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술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줄 것인지,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지, 미술치료와 연계된 임상 중심의 활동 여부에 따라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구축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됨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미술관 융합교육 기초 모델 연구를 위한 FGI 공통 의견 요약은 [표 4]와 같다.

[표 4] 미술관 융합교육 기초 모델 FGI 공통 의견 요약

전문가 그룹	활동 경력	미술관 교육 현황 관련 주요 의견
- 발달장애인부모 (A): 51세(母) - 발달장애인부모 (B): 49세(母)	母(A): 21년 母(B): 13년	· 외부에서 자녀의 돌발 상황을 융통성있게 해결하고 주변에서 이해해줄 만한 체험교육 기관이 거의 없음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부 활동이 더욱 어려워져 교육과 문화생활 등이 단절되는 두려움과 고통도 느끼는 실정임 · 국립미술관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에 따라 사립미술관도 긍정적 개선도 기대하고 있음
작업치료사(C): 33세(男)	5년 6개월	· '찾아가는 미술관' 방식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개설이 최근 확산되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연계되는 사례가 늘어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간호사(D): 29세(女)	3년	· 대학의 '미술치료' 전공자들과 관련 학과 교수님들의 협업을 이 예술 활동을 통한 치료와 치유의 임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의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초등특수교사 (E): 39세(女)	13년	· 학교교육과 연계된 박물관, 미술관 활동 협약 가능한 기관들이 극히 적음 · 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학예사들이 적고, 자원봉사의 도움도 일부 한계가 있음
- 전시 큐레이터 (F): 56세(男) - 전시 큐레이터 (G): 42세(男) - 전시 큐레이터 (H): 32세(女)	전시(F): 18년 전시(G): 6년 전시(H): 2년	· 사립미술관은 여전히 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음 · 전문 학예인력,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장애인 인식 제고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술교육 서비스의 질적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 콘텐츠가 더욱 내실있게 강화되어야 함
- 에듀케이터(J): 37세(女) - 에듀케이터(K): 30세(女)	교육(J): 5년 6개월 교육(K): 2년	· 에듀케이터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와 티칭 노하우를 동시에 갖춘 교육 전문성을 함양해야 함 · 가장 우선으로 안전교육과 활동보조교육의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함
- 대학교수(L): 53세(男) - 대학교수(M): 48세(女)	교수(L): 20년 교수(M): 8년	· 장애인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차별화된 교육 기획으로 완성도가 높아야 함 · 경험적 참여중심, 교육중심, 치료병행 중심 등으로 교육 콘텐츠가 특화되어야 함

4-2. 경증 장애인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제안

최근 미술 감상 및 미술관 교육은 미술의 교육적 가치를 예술의 특징에서 찾는데, 이는 예술을 통해 '세계'와 '사물'에 대한 '미적 체험으로서의 예술교육'이라는 시사점을 가지며, '만나고 교제하는 경험과 활동'의 특별한 방식을 제공한다.²⁵⁾ 이렇듯 미술관 교육은 감상과 예술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중요한 학습의 장(場)으로, 개인의 삶에 넓은 안목과 풍부한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서로 다름'과 '세상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원만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확장해준다. 뮤지엄은 전 국민 대상의 공공서비스 특성을 가지며, 모두에게 열린 교육, 휴식, 즐길, 소통, 향유 등을 골고루 누리는 접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FGI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미술관 교육의 참여와 확산을 위해 경증 장애인의 배리어프리화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위한 미술관 융합교육의 기본 모델과 방향성 가이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판정 기준>을 중심으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우울장애 및 경동장애 등)와 발달장애로 중분류되며, 발달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소분류 범주에 포함된다.²⁶⁾ 장애인 감상 교육과 체험 활동은 전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브젝트 러닝(OBL; object-based learning)' 기반의 뮤지엄 교육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전시물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이 중첩되어 있어 관람자가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시물과 소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관람자는 원본 전시물 외에도 복제품 등의 재현물을 활용하여 상호작용과 체험을 통해 다양한 감각 인지, 통합적 사고와 해석 등이 가능하다.²⁷⁾

또한 2015년부터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맥락과 경험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실천하는 액션 러닝(Action Learning)이 진행중이다. 액션 러닝은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서, 과제해결 계획을 세워 실제 경험을

25) 류지영, 이주연, 고헌경, 학교미술교육 강화를 위한 미술교육의 내용 및 방향, 미술교육연구논총, 2020, 60호, pp.20-21, 요약 재구성.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1호(2018년 7월 기준)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1371>

27) 주찬미, 박물관에서의 발달장애인 대상 OBL 프로그램 구안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주생활 전시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18-19. 주찬미의 강인애(2010)와 양지연(2006)의 선행연구 재인용 내용을 본 연구에서 재구성 하였음.

하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며, 이를 기초로 학습하는 ‘계획→실행→성찰→학습’의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액션 러닝 경험자는 실제 상황의 이해력, 문제해결 능력, 협동력, 대인관계 능력 등을 개발할 수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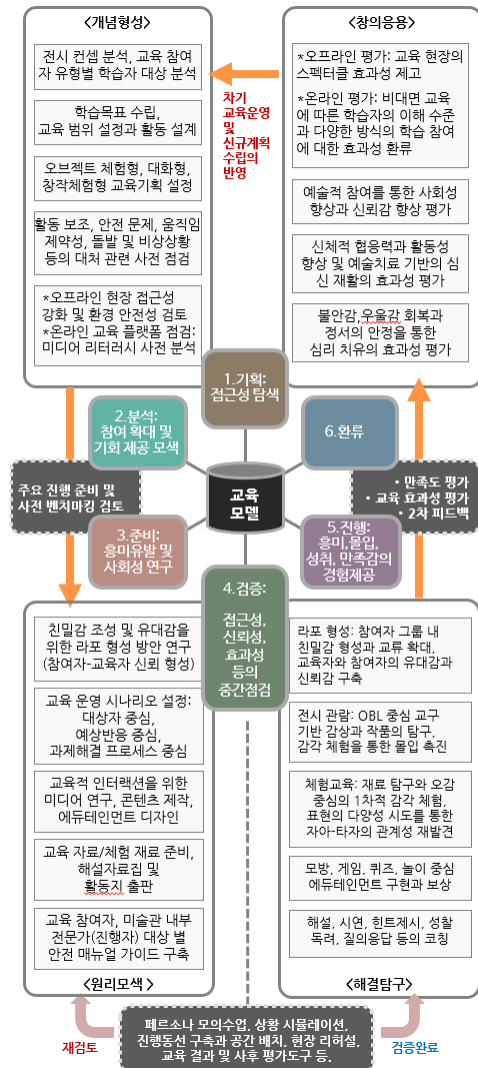


[그림 5]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수업 프로세스 설계

[그림 5]는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수업 프로세스를 설계한 것이며, 특히 경증 장애인의 효과적인 미술관 통합활동 프로그램 참여와 현장 교육에서의 창의적·교육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기본 프레임 6단계로 과정별 필요충분조건의 세부 요소들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GI의 산출결과와 방향성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접근성, 참여의 기회, 성취와 만족, 치료와 치유의 증진, 사회성과 신뢰성 형성, 흥미·관심·몰입 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축전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을 액션 러닝과 OBL 병행학습을 중점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관에서의 자발적 참여성과 상황에 따른 신속한 도움 및 활동보조 서비스가 가능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사회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교육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세부 가이드라인 사항들은 [그림 6]과 같다.

여기서 제시하는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은 기획·분석·준비·검증·진행·환류 등의 6단계 과정이 연결되는 교육 모델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미술관 STEAM 융합모델에서 제시되었던 개념형성·원리발견·문제해결·창의응용 단계 방식을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분류 항목으로 일부 보완하였다. 또한 액션 러닝 설계에서 다루는 “러닝코칭 역량함양”-“교육주제와 학습자 분석”-“학습목표 수립과 과제 범위 설정”-“해결 프로세스와 러닝코치 활동 설계-워크북 개발”-“액션 러닝 수행”-“형성평가”-“피드백” 등의 모델 유형을 [그림 6]과 같이 재편성하여 새로운 융합교육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융합교육 모델 구현은 현장 수업(또는 해설 감상수업)의 ‘준비’와 ‘진행’ 단계 사이에 ‘검증’의 중간 단계를 도입함으로써 경증 장애인의 페르소나에 직접 이입되어 그들의 기준으로 참여하는 교육 활동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리허설과 마이크로 티칭의 연습을 통해 사전에 드러난 문제점과 보완 요소들을 재검토하여 이를 충족함으로써 미술관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준 척도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6] 경증 장애인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 구현²⁹⁾

28) 장경원, 고은현, 고수일, 학교에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교육방법연구, 2015, vol.27, no.3, p.430, 부분 요약.

29) Ibid., p.432
양연경, STEAM 기반의 미술관 에듀테인먼트 스마트 콘텐츠 모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98
장경원(2015)와 양연경(2014)의 연구를 부분 참조.

한편 경증 장애인과 교육현장에서 대화로 소통할 때에는 가까이 대면하여 간결하게 말하기, 원하는 의사결정(행위)의 질문에 대해 선택 사항들(옵션) 제시, 쉬운 단어의 사용, 상황적 협상이 필요한 대화의 시도, 긍정적인 대답의 응대, 상황 인지에 대응하도록 자주 알려주는 대화 등의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³⁰⁾ 특히 상호간의 자연스러운 관계 연결을 위한 'GROW 기법'도 좋은 소통 방법이며, Goal(목표)-Reality(문제인식)-Option(해결방안)-Will(결론) 등의 4단계를³¹⁾ 통해 배려와 포용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교류가 되도록 미술관 참여자의 니즈와 특성에 맞추어 액션 러닝 전시해설 감상교육과 체험형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에듀케이터(또는 도슨트)의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새로운 시대의 뮤지엄 예술교육은 편안한 접근성과 친근함, 새로움의 독창성, 선택의 다양성, 교육 대상의 특수성, 즐거움의 만족성 등을 복합적으로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획력과 운영 전문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예술 작품들을 다루는 기획전시가 구성되는 미술관의 문화예술교육은 대중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육 대상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수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미술관 교육은 학교의 보편적 공교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영리성 목적의 사교육과 달리, 문화 시민의 품위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국민의 감성적 정서 함양과 미적 체험의 기회를 골고루 경험하게 하며, 교양지식과 전문지식을 참여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융합교육 모델을 통해 효과적인 뮤지엄 교육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슈퍼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의 인식을 넘어, 감상수업과 예술 체험형 활동 수업에 함께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 타자의 이해와 서로 다름의 다양한 관계성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사회적 함양의 기회를 확산할 수 있다.

둘째, 미술관 전문 학예인력들이 장애인과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기획(접근)-분석(모색)-준비(연구)-검증(점검)-진행(현장운영)-환류(피드백) 과정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미술관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뮤지엄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행되었던 OBL 방식과 액션 러닝의 상호 보완점을 융합하여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에듀테인먼트를 구현하여 흥미와 학습 욕구를 함께 촉진시킬 수 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산에 따른 미술관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전환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된 뮤지엄 교육 콘텐츠 구현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포용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노년층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 저하와 인지 장애 증상을 겪으면서 외부와 소통하는 기회 상실의 우려를 겪으며 주변인과의 친밀도와 문화적 교류의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감 문제, 초고령 노년층 및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산에 따른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 등은 효과적인 미술관 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경증 발달 장애인은 치료를 병행하는 재활학습과 다양한 오감자극 체험 활동, 특수교육을 동반한 공교육, 가족 및 활동보조사의 상황 맞춤형 도움 등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성장 이후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특정 상황의 긴장감으로 인한 상동행동³²⁾이나 갑작스런 불안감으로 인한 돌발행위 등을 안정되게 통제할 수 있는 심리치료와 재활훈련 등을 통해 사회화 학습을 거치면 직업적 기술 능력을 발휘하는 근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증 발달 장애인은 IT분야, 서비스업, 예술 및 디자인 분야, 제조 유통업, 외식업 등의 취업이 가능하므로, 미술관 융합 교육의 경험과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는 이들의 사회진출에 있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의 다각적 접근성과 경험의 확장, 의미있는 문화적 소비, 즐김과 심을 선사하는 미술관의 참여 활동은 예술적 경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좀 더 유연한 시선으로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되는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30) 이영희, 노인복지론, 에듀컨텐츠휴피아, 2020, p.235.
「치매노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본 연구의 경증 장애인의 미술관 교육 서비스 모델로 재구성함.

31) 정의환 외 공저. 관계를 잇는 소통의 세계, 북인사이트, 2020, pp.202-203. 요약 재구성.

32) 같은 동작을 주위의 상황과 상관없이 반복하고, 특정 특정 공간 내에서만 반복적으로 왕복하는 행위들.
김문주, 자폐, 이겨낼 수 있어, 와이즈나, 2017, p.64

특히 미술관 교육은 학교 공교육과 일화성 문화강좌에서 다루지 못하는 성숙한 깊이와 밀도가 있는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장해준다. 미술관 활동을 통한 예술치료 활동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는 예술을 통한 주변인들과 순수한 교류의 기회, 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 외부와 단절되었던 마음의 회복, 삶의 의미를 찾는 긍정적인 활력의 재발견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간접적인 시너지도 발휘한다.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예술의 감수성을 고취시키고, 문화향유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은 관람객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으면서 문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향후 배리어프리 중심의 미술관 융합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에듀케이터와 큐레이터의 전문가 역량은 사용자 학습 경험 디자이너, 예술 상호작용의 연결자, 활동 몰입 촉진자 등의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뮤지엄 퍼실리테이터(Museum Facilitator)³³⁾로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김문주, 자폐, 이겨낼 수 있어, 와이즈리, 2017
2. 김지영, 가르치지 말고 경험하게 하라, 플랜비 디자인, 2019
3. 이영희, 노인복지론, 에듀컨텐츠휴피아, 2020
4. 정의환 외 공저. 관계를 잇는 소통의 세계, 북인사이트, 2020
5. 김수진, 구성주의적 감상 교육에서 “주제”의 생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미술과교육, 20(2), 2019
6. 남현우, 미술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모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2), 2008
7. 류지영, 이주연, 고헌경, 학교미술교육 강화를 위한 미술교육의 내용 및 방향, 미술교육연구논총, 2020, 60호

33) 김지영, 가르치지 말고 경험하게 하라, 플랜비디자인, 2019, pp.80-84, ‘러닝 퍼실리테이터 (learning facilitator)’ 개념을 일부 차용하여 미술관 전문가의 주요 역량, 역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8. 백령, 민정아, 포용적 문화예술교육 장애예술대상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의 구도, 문화예술복합학 2019 공동학술대회, 2019
9. 심효진, 정옥희, 국내 미술관 교육 연구 현황 및 동향 탐색, 조형교육, 2014, 52호
10. 임학순, 사회혁신을 실천하다: 미술교육과 파트너십, 2020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결과보고서-한국조형교육학회, 2020
11. 장경원, 고은현, 고수일, 학교에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교육방법연구, 2015, vol.27, no.3
12. 전병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5, 2015-08호
13. 정연희, 삶의 균형을 위한 예술교육, 미술과교육, 2019, vol.20, no.4
14. 조현성,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2020. 2020-07호
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2005
16. Mark C. Pachuki, Classifying quality: Cognition, Interaction, and Status Appraisal of Art Museums, Poetics, 2012, vol.40, no.1
17. 양연경, STEAM 기반의 미술관 에듀테인먼트 스마트 콘텐츠 모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8. 주찬미, 박물관에서의 발달장애인 대상 OBL 프로그램 구안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주생활 전시물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19. terms.naver.com
20. www.ableservice.or.kr
21. www.arte.or.kr
22. www.artmuseums.or.kr
23. www.bokgwon.go.kr
24. www.koil.kr
25. www.law.go.kr
26. www.museum.go.kr
27. www.museum.or.kr